

# Russia·CIS Talk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 원우 논문

## Article

### 2022 카자흐스탄에 불어온 역(逆) 색깔혁명

김소연

박사과정, 러시아·CIS 정치 전공

thdus11kr@naver.com

#### 2022 카자흐스탄 시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2022년 새해 벽두 우크라이나에 이어 카자흐스탄에서도 글로벌 안보이슈가 발생했다. 중앙아시아의 맹주 카자흐스탄 전역에서 반정부 유혈 시민 폭동이 일어난 것이다. 국가를 마비시킨 소요 사태는 새해 카심-조마르트 토크예프 (Kassym-Jomart Tokayev) 현 정부가 발표한 LPG 가격 통제정책 폐기가 뇌관이 되어 그동안 누적되어 있던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시작되었다. 카자흐 정부 및 언론은 극렬시위의 주도 세력으로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테러리스트, 극단주의자 및 범죄 단체 등을 지목했다.

이번 사태는 지금까지 발생했던 반정부 시위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소요 사태를 전후해 목도되는 일련의 국내외 상황

들은 시위의 저류에 고도의 정치적 음모가 내포되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시위가 카자흐스탄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점, 러시아 주도의 집단안보조약기구 (CSTO)가 군대를 즉각 파병한 점, 이 사건으로 국부(國父)이자 실권자인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전 대통령이 축출된 점, 토크예프 현 대통령이 국부의 '인형'에서 1인자로 등극한 정황 등이 그런 해석에 힘을 실어준다.

#### 2022 카자흐스탄 시위

전국적 시위 발발 주요 사건



2022 카자흐스탄 시위 주요 사건 지도  
(출처 : Reddit)

## 국부(國父) 나자르바예프의 축출

카자흐스탄 시위는 나자르바예프의 퇴장과 함께 소강 국면을 맞이한 듯하다. 그는 2019년 대통령직을 공식 사임했음에도 그동안 국가안보회의 의장, 집권 여당인 누르오타 당(Nur-Otan Party) 대표, 헌법위원회 의장,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종신 의장 등 주요 요직을 겸하며 국정 장악력을 유지해왔다. 일종의 상왕(上王)으로서 실권을 유지해온 것이다. 그러나 시위 기간 내 나자르바예프와 그의 가족들은 공식 석상에서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전·현직 대통령 간의 권력 암투설, 나자르바예프 일가의 해외 도피설이 등이 제기되었다.

소요사태 정리 후 나자르바예프가 보유한 권력은 빠르게 토카예프로 이양되기 시작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상왕을 국가안보회의 의장직에서 해임했을 뿐 아니라 친(親) 나자르바예프계 인사인 총리, 국무비서관, 국가안보회의 제1부위원장 등을 경질했으며 그 자리를 친(親)토카예프 인사들로 대체했다. 시위 진압 후인 지난 1월 18일, 나자르바예프가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 현 대통령과의 불화설을 일축했지만, 주요 요직에 대한 토카예프 대통령의 독자적인 인사권 행사는 상왕 축출을 분명케 한다.

1월 말, 토카예프는 집권 여당 누르오타 당 대표로 선출되었다. 의회에서는 초대 대통령에 한정해 보장된 평생 국가안보회의 의장직을 폐기하는 헌법 개정안이 채택되어 국부 나자르바예프에게 주어진 주요 대내외 정책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박탈되었다. 3월에는 집권당 명칭을 아마нат 당(Amanat Party)으로 변경하는 등 토카예프 정권은 전임자 흔적 지우기에 돌입했다. 또한 정·

재계에 대거 포진해있던 나자르바예프 친족들이 하원 의원직, 주요 국영회사인 QazaqGaz, KazTransOil, Gazprom 등에서 줄줄이 사임했는데, 이는 카자흐스탄의 권력지형 재편을 의미한다.

이런 일련의 국내정치적 변화들을 미루어 보아, 카자흐스탄 통치 엘리트 집단 간 파워게임이 시위를 통해 급물살을 타고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권력 기반이 약했던 토카예프는 국부의 장기집권에 피로현상을 보인 시민들의 불만을 활용해 탈나자르바예프화를 추진하는 한편, 자신에게 집중된 통치 권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 러시아 주도 CSTO 군대의 카자흐 파병 의미

이번 시위에서 주목할 점은 러시아 주도의 집단안보조약기구(CSTO)가 2002년 창설 이래 최초로 회원국 국내 문제 해결을 위해 파병되었다는 사실이다. CSTO 병력 파견 요청은 카자흐 정부가 처음이 아니다.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 2010 키르기스스탄 혁명 등 국내외 갈등에 CSTO 병력 지원은 줄곧 거부되었기에 이번 사태에서 파병은 매우 이례적이다. 집단안보조약기구군의 카자흐 파병은 매우 신속히 이루어졌다. 1월 5일 토카예프 대통령의 요청이 있는 지 하루도 안 돼 2,500명의 CSTO 군이 즉각 파병되었고, 주요 전략 기반 시설을 장악함으로써 카자흐 정부는 극렬 시위사태를 단기간에 진압할 수 있었다. 이처럼 CSTO의 빠른 대응 배경을 두고 관측통들은 시위 발생 이틀 전에 열린 상트페테르부르크 CIS 정상회담에서 토카예프와 푸틴 사이에 모종의 사전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론한다.

크렘린이 최초의 CSTO 군 파병을 결정한 이유는 카자흐스탄이 탈소비에트 공간에서 러시아의 지도력 강화와 유라시아형 안보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협력세력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듯하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카자흐스탄에서 친러 정권의 안정적 유지는 크렘린의 지정학적 위상 확보와 안보이익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우크라이나를 놓고 서구와 격렬히 대립 중인 시점에서 친러 카자흐스탄 정권이 동요할 경우 러시아의 지정학적 운신의 폭은 크게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구소련 공간에서 친러 정권의 안정적 유지가 러시아의 안보이익 및 지정학적 위상 확보와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크렘린이 전략적 모호성을 보인 나자르바예프를 손절하고 친러적 성향의 토카예프를 지원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전임자 나자르바예프는 "다중 벡터(Multi Vector)" 대외정책을 통해 특정 강대국에 대한 외교적 편중을 지양했고, 다양한 균형외교를 통해 주변 열강들로부터 가해져 오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 안보적 부담 및 영향력 등을 상쇄하고자 했다. 이런 외교원칙이 적용되는 주요 협력국에는 러시아뿐 아니라 미국, EU, NATO, 중국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반면, 토카예프는 취임 후 공식 석상에서 러시아는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임을 자주 언급했고, 최근에는 카자흐스탄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러시아의 이익임을 강조했다. 나자르바예프·토카예프 두 지도자의 상반된 대외정치적 지향으로 볼 때, 푸틴 정부가 토카예프를 새로운 협력파트너로 선호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시위사태 진압 이후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관계는 매우 돈독해지고 있다. 지난 2월 토카예프는 카-러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푸틴·토카예프 양국

정상은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을 넘어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뿐 아니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틀 내에서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러시아로서는 카자흐스탄의 국내정치적 안정 지원을 계기로 충성심이 강한 친러 정권을 얻었으며, CSTO에서의 지도력 강화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 셈이다.

## 카자흐스탄은 어디로 가는가?

그렇다면 2022년 카자흐스탄 소요사태는 국제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필자의 관점에서, 본 시위는 그간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에서 노정된 색깔혁명과는 정반대 모습의 '역(逆) 색깔혁명'으로 규정할 수 있다. 탈소비에트 공간에서 민주화를 상징하는 색깔혁명과는 달리, 이번 시위는 카자흐스탄 통치 엘리트 집단 내의 분열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의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2022 카자흐스탄 시위는 2020 벨라루스 시위 당시 러시아의 개입을 연상시킨다. 벨라루스 루카셴코 정권은 푸틴 대통령의 지원 덕분에 반정부 시위를 진압하고 권위주의 정권을 지속할 수 있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벨라루스의 행보가 보여주듯, 그간 러시아에 고분고분하지 않았던 루카셴코 정부는 이제 크렘린의 요구와 의도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푸틴의 러시아에 의해 루카셴코 벨라루스 정권이 단단히 결박된 것이다.

러시아와 서구 사이에서,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자 했던 나자르바예프가 실각한 지금, 토카예프 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이 어디로 향할지 국제사회의 관심을 끈다. 올 연초 시위사태를 기점으로 촉발된

카자흐스탄의 탈나자르바예프화 과정은 현대화로의 발걸음이 아닌 과거 구소련 시절의 카자흐스탄으로 퇴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향후 토카예프 정부의 대외정치적 행보와 카-러 관계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편집인 ■ 김상경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107 TEL ■ 02-2173-2556

홈페이지 ■ [ruscis.hufs.ac.kr](http://ruscis.hufs.ac.kr)

후원 ■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기획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